

압둘라 말레이시아 총리를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압둘라 바다위 총리 각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오랜 친구인 말레이시아의 귀한 손님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습니다. 총리 각하와 일행 여러분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하께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우의를 보여 주셨습니다. 며칠 전 양국 기업이 합작한 자동차 공장 준공과 관련해서도 많은 격려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각하께서 20여년 전 마하티르 전 총리와 함께 입안하신 '동방정책'은 지금까지 양국 우호협력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 역시 페낭 대교 건설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크게 확대되어 온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가 1995년부터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푸트라자야도 우리의 신행정수도 건설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의 발전은 매우 놀랍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1천억

달러를 달성하고 7년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과 말레이시아 국민의 저력으로 이루어낸 성공에 경의를 표합니다.

총리 각하,

나는 오늘 각하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두 나라가 명실상부한 동반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양국은 매년 15만명이 왕래하고, 연간 교역량이 80억 달러를 넘어서는 아주 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육·문화·관광·스포츠를 비롯한 민간교류도 매우 활발합니다. 특히, 우리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적극적인 지지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국은 이러한 유대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역내 협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경제 허브인 말레이시아와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긴밀한 협력은 동아시아를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가 '비동맹회의'와 '이슬람회의기구' 의장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압둘라 총리 각하의 건승과 말레이시아의 번영,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축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